

2008 새해설계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장 정홍식

“질병 없는 사회 건강보험이 실현합니다”

노인건강운동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앞장

“우리는 국민건강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 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단의 주인은 국민임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며 결과에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단정하고 밝은 미소, 공손한 말씨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속·정확·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 중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함은 물론 소정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장 정홍식(사진)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사의 주요 사업실적은 각종 건강검진 사업으로 사업장 검진 2만553명, 상인병 검진 1만889명, 암검진(생애암 포함) 1만5천277명, 유아검진 2천518명 등으로 경기도내 39개 지사중 상위9%에 검진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이 없는 면 소재지는 5개 암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차량을 도입하여 검진하고 있다.

각종 건강검진사업으로는 노인건강운동의 경우 22개소 704회에 걸쳐 1만2천924명이 참가했으며 유관기관 연계강좌 6회, 일반, 학교 건강강좌 6회, 지역 건강 캠페인 4회, 황사대비 캠페인 4회를 실시했다.

정 지사장은 “포천지역은 면적이 넓고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기체조, 웃음치료, 전문민속춤 등 전문강사를 마을회관에 보내드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군부대, 유관기관에 직원 강사로 나가 금연강의 등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성분 분석기 등 다

양한 장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만도 측정 등 건강 캠페인도 펼쳐 나가고 있다. 또 가입자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 342명, 합리적 의료이용 639명, 고충상담 195명, 건강상담 24명, 진료비적정확인 63건에 208만5천536원을 회수토록 했다.

진료비적정확인인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보험대상과 비대상을 확인하여 착오 청구된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 방송사의 보도 때문인지 올해 실적도 2월말 현재 400만 원이 넘어서고 있어 행정적으로 인한 병원비가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사는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직접 가정 방문해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하게 돌봐드리고 있으며 장기간 입원 등으로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에 재 산정해 진료비를 찾아드리기도 한다.

특히 올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복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으며 시설급여는 장기간 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해 신체활동지원, 심심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별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사는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법률전문가 1명, 노인복지전문가 1명, 노인복지담당공무원 2명, 공단직원 1명, 원로공무원 1명 등 15명으로 선정작업을 마쳤다.

3월중에 위촉식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노인 분들의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

인부담금으로 충당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험료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가족의 부담 경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지사장은 “포천지역에도 노인비율이 11%를 넘어가고 있으며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30년에는 38%에 이를 전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사는 노인건강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로당 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008년도에는 일동면 길명2리, 이동면 도평1리, 화현면 화현5리에서 웃음치료, 참수면 오가1리, 영종면 아미1리, 일동면 수입1리에서 민속춤, 화현면 화현3리, 신북면 삼곡2리, 내내면 구읍1리에서 국악기공예조 과목을 3개월간 실시한다.

각 경로당마다 3개월씩 1년에 3개 경로당씩 9개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운동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웃음치료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자신감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포천시사의 의료이용자당 연간 진료비는 64만7천992원이며 연간 내원인수는 14.7일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인 수월시 영통구는 의료이용자 1인당 연간진료비가 55만4천원으로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사에서 2007년도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한 현금급여 실적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11건에 3억8천172만원이 지급됐고 장애비가 755건 1억8천850만원, 요양비(만성신부전) 4건 530만8천원, 가정산소 치료보조비 21건 201만6천원을 지급해 총 현금 급여비는 1천191건에 5억7천754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사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정 지사장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에 협조해 달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취재파일

4.9국회의원 선거전 네거티브로 전락

예비후보 상대후보 비방 흑색선거로 돌변

유권자, 지역발전 대안제시 정책선거 기대



하승원 본지 취재국장

4.9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간에 흑색선거전이 난무하고 있다. 당선되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 계획이나 지역발전 전략을 강조하는 입후보예정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의 정치문화 수준이 이 정도로 불과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포천시지역 선거구에 공천신청한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2월18일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이어 19일에는 공천신청자 6명중에서 3명으로 압축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28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공천내정자들을 발표했다. 이날 포천시지역 선거구 한나라당 공천 내정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아울러 포천시지역 선거구에 관한 공천과 관련된 말들은 전혀 확인된 바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퍼트렸다. 2월29일 저녁 포천시 지역 이곳저곳에서는 모 예비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자로 내정되었고 지지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포천시지역 선거구 공천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다는 시기가. 또 다른 모 예비후보는 3배수 압축에서 탈락되었지만 다시 2배수로 압축해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을 결정한다는 소문을 퍼트렸다. 이같은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이같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소문은 한나라당 공천 내정자가 결정되었던 3월6일까지 계속되었다. 지역선거구에서는 한동안 혼란이 가중되었고 지역민들은 과연 이들이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정치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양식있는 시민들의 여론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했으면 한다. 또 지역민들은 정책이 실증되고 인기 영합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냉증을 느끼고 있다.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발전은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최고의 지도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없는 말을 만들어 퍼트린다는 것은 당선되고 나면 그 민심이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포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천관련 잡음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가 밝히고 있는 공천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당사태 등 당내 분란을 우려해 선별 구제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 심사를 하겠다”며 공천심사위의 이번 결정을 이근 박재승 위원장의 특심은 박수를 받을만한

다. 한국정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선거운전이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 지역정치적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지역정치권도 변해야 한다. 지도자는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은 도덕적인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은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이 많다.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인사들은 유권자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첫째, 정직하고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간에 갈등으로 인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갈등은 지역의 분열과 지역의 낙후성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경쟁했던 사람일지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강한 리더십은 결코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경쟁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민들은 이제 지역을 변화시킬 새로운 지역정치 문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바라고 있다.

또한 혼란스러운 지역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리더십은 독선과 이집과 분명이 다르다.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 민심을 수렴하는 사람이다. 경기동북부 지역에 속하는 포천과 연천지역은 무늬만 수도권인데, 중첩규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반세기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해 온 사람들에게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을 대표해 온 사람들은 이같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각종 중첩규제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는 선거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유도하기 위한 알뜰한 술수보다는 지역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입후보자 혼자 하겠다는 것보다 우리지역 미래를 위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개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민연했던 현역과 지역, 학연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손영배원사 퇴역 및 출판기념 만찬회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자 손영배 올림

감사의 말씀

-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빌립보서 4:12~13)
-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벧전 5:14)
- 손영배 시인의 퇴직 및 시집 '내일도 사람이 그림다' 출판기념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을 소개하오니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며(010-5074-5672) 함께 기쁨을 나누었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행복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리를 빛내 주신 분(개인·단체, 접수 순입니다.)
- ▶정해균(장원회관) ▶김수환 ▶김영희(기갑군정점) ▶최재문(효성철물) ▶임인형(운천타일) ▶홍영식 ▶백재홍(서울상회)
- ▶유동인 ▶유인욱 ▶오재복(5군) ▶박인석(영북중) ▶김현수(전격) ▶명경근(운천제일교회 전도사) ▶이세호(운천제일교회 목사)
- ▶전혜진 ▶고갑숙 ▶유경준 ▶장기문(영북중 교장) ▶김명성 ▶이수길 ▶김용경(황금당) ▶서희정(대가식당) ▶이혜자
- ▶채수옥 ▶전천운 ▶강용구 ▶김민건 ▶박영희(문암골썰터) ▶김정우 ▶이경찬 ▶이정실 ▶장남영 ▶김영집 ▶이기문
- ▶이경준 ▶편복임(대우식당) ▶정용문 ▶이요한 ▶기갑통신대 김봉춘 외 다수 ▶최종태 ▶최기만 ▶김성희 ▶엄기섭
- ▶김동석 ▶박근석(냉수회 회장) ▶김형석(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총무) ▶정병선 ▶양우진 ▶이미정(반월문학회)
- ▶이은미(반월문학회) ▶이정옥(반월문학회) ▶오용석 ▶박인 ▶김충호 ▶최성균(세일사) ▶이홍우 ▶한재영(영북가스)
- ▶이창길 ▶양병문(국방대) ▶변도원 ▶김영철 ▶장주은 ▶김정수 ▶한영환(현대차) ▶김광민 ▶김병수 ▶오대석
- ▶원영복 ▶김성임(평강식물원) ▶원현숙 · 임희수(천금당) ▶최광진(이장) ▶홍기영 ▶이호영 ▶서정봉(규수반)
- ▶김실용(포천시청) ▶송근식 ▶권기현 ▶김종원 ▶김정영 ▶김태화 ▶권창섭 ▶김종경(김준태) ▶신건영(통일공업사)
- ▶이대복(김진에) ▶서천원 ▶김진혁(정보) ▶강경주(정비) ▶김명자 ▶박매운(목장) ▶류재필 ▶김용학 ▶신성호
- ▶이복선(기갑연대 주임원사) ▶김삼용 ▶김주복(페리카나) ▶김철휘(창신유리) ▶이광순 ▶이충호 ▶박효권 ▶김규재
- ▶서명삼 ▶박해진 ▶박현규 ▶최성호 ▶오세철 ▶박진례 ▶한재윤(아폴로세탁소) ▶심홍신(영북중 교장) ▶하성현(선화마트)
- ▶박경식 ▶한철수 ▶김재한(영북인력) ▶강대선 ▶정창순(25) ▶강용훈(기수연합회) ▶박훈 ▶정병호 ▶정인호
- ▶최병두(1기갑) ▶최갑식(기갑총무) ▶심용섭 ▶김태훈 ▶김성수(강경자) ▶배재건 ▶이복규 ▶이광택(운천교회교회)
- ▶김상철 ▶김준수(중앙기름집) ▶김두희 ▶김재민 ▶김현주 ▶권영태 ▶신진수(전격이발소) ▶신재원(광명식당)
- ▶남충구 ▶박용찬 ▶김정영 ▶모종봉 ▶조봉규 ▶강경석 ▶이팔구 ▶송기찬 ▶신원기 ▶김미경(중앙일보)
- ▶강남중(하늘발판식) ▶임영선(대원도국가대표감독) ▶신상호(영북중교 교장) ▶이홍우 ▶김진만 ▶천만일 ▶윤석문
- ▶권순각(8사) ▶김정수 ▶김익수(자원) ▶박재동 ▶현대식(오리식당) ▶유경준 ▶류상성(버들농장) ▶박재경(영북농협)
- ▶이동일 ▶박동규(영북노인대학장) ▶이재진 ▶김길남 ▶김진걸(경보사) ▶신재균(텍스텍대표) ▶김진진(포천문협 사무국장)
- ▶정기모(시인) ▶박상기(박치과의원) ▶남선이 ▶양범식(운천한의원) ▶유연준(문경잡비) ▶채충기 ▶권동혁 ▶김기성
- ▶김상철(청수회) ▶강성열(LIG) ▶기우봉 ▶안광석 ▶권정용(75자) ▶김상문 ▶김기표 ▶이영철(운천교회교회) ▶남궁보현
- ▶김영복(포천신문 편집국장) ▶오원택 ▶이시경 ▶구기홍(3739부대장) ▶최호열(포천신문 대표이사) ▶신현구(청수회 회원일동)
- ▶반월문학회 회원 ▶운천제일교회당 ▶이상용(영북농협 조합) ▶안익수(제3의문학 주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일동
- ▶윤선예(포천공인중개사) ▶이상일(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영북자유방방대장 ▶영북태권도자모회
- ▶영북중학교 교직원 · 운영위원 일동 ▶박운국(영북초중고총동회장, 전 포천시장, 국회의원예비후보)
- ▶이중희(포천문인협회 회장) ▶정영갑(포천신문 업무국장)

